



봄 소식 전하는 광양매화축제 내달 13일 ‘팡파르’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해 3월 13일 열린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3월 13일 개막해 열흘간 진행되며,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광양)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시는 올해 축제를 예술·전시·체험이 결합된 문화관광축제로 확장에 체험·향유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한다.

매화문화관에서는 기린도를 그린 광양

출신 엄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을 개최하고, 방우송·이이남·이경호 등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인의 설치 작품전도 함께 마련해 전통과 현대, 미래가 어우러지는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입장료를 1000원 인상(성인 6000원)하고, 입장료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축제장과 다압면 내 참여 점포,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광양만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세계 최초 김 양식지의 역

시, 콘텐츠 구성·관람객 안전·편의 방안 등 확대 먹거리 콘텐츠·주차면 확대…“주민과 상생 강화”

사성을 담은 ‘김국 한상’을 비롯해 광양의 대표 브랜드인 불고기를 활용한 ‘불고기 답이 광양도사리’, ‘광양불고기김밥’, ‘광양매실한우버거’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섬진강 매화마실 공간에는 차량 통제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카페가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디지털 업체들은 매화·매실을 주제로 한 축제 한정 메뉴

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축제 공간을 직접 누비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확대한다.

‘광양매화 스템프투어’는 축제장 3개소를 방문해 매화마을 전경을 스템프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며, ‘매화인생 사진관’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시지부 소속

전문 사진가들이 매화꽃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통 활쏘기 체험 ‘매화꽃 활터, 매화사옹’, 둔치주차장에서 강마을커뮤니티센터까지 섬진강변을 걷는 ‘매화길 가벼운 걸음 (Fun Run)’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매화문화관 뒷마당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물어업 체험’ 등이 마련된다.

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전년 대비 250면 늘린 총 3150면으로 확대하고, 셔틀버스도 22대에서 28대로 증가

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해 주행사장 음식부스에는 다화용기를 전면 도입하며, 종합상황실 운영과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국가유신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고흥군 섬 해양유산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 해양유산 기록·자원화 모색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이 사라져가는 섬 해양유산에 대해 체계적 기록과 자원화에 나선다.

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국가유신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고흥군 섬 지역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조사 자료·연구 성과의 공동 활용,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및 현지 보고회 개최를

통한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집중 조사 대상은 고흥군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이다. 국립해양유산 연구소는 전체적인 조사 기획과 학술 연구를 총괄하고, 고흥군은 현장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주민 협조 체계 구축을 전담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단계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 내용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해양유산 조사 보고서 발간과 영상 기록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조사 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의 소중한 자산인 섬 해양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유산의 가치를 높여 지역의 핵심 동구 성과의 공동 활용,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및 현지 보고회 개최를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순천만가든마켓, ‘꽃과 나무 시장’ 개장…정원 용품 한자리

원예용 도구·소품 등 ‘원스톱 정원 소품 환경’ 제공 내달 31일까지…농가 판로 확대·소득 증대 도모

순천만가든마켓이 다가오는 봄을 맞아 3월 31일까지 ‘꽃과 나무 시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로, 고품질 식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꽃과 나무 시장의 큰 특징은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식물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판매 장터를 넘어 지역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정원문화 확산을 동시에 도모하는 상생형 정원마켓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가든마켓은 초보 가드너를 위한 ‘현장 분갈이 서비스 존’을 운

영한다. 행사장에서 식물 또는 화분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분갈이를 지원해 식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기능별 상토·비료, 원예용 도구, 디자인 화분, 정원 가구 및 소품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자재와 용품을 한자리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해 ‘원스톱 정원 소품 환경’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이벤트도 마련된다. 무료 나무 나눔 행사와 반려 식물 증정, 현장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든마켓을 단순한 소품 공간을 넘어 일상의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순천만가든마켓이 다가오는 봄을 맞아 3월 31일까지 ‘꽃과 나무 시장’을 운영한다.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가든마켓 관계자는 “이번 ‘꽃과 나무 시장’은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정원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 산업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 스마트농업 기반 시설 구축 돌입 농어촌공사 장흥지사과 위수탁 협약

장흥군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원에 스마트농업 기반 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안정성·추진력을 확보하고, 육성지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14억원(지특 100억원·도비 30억원·군비 84억원·민자 800억원)을 투입해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원에 스마트팜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공사 발주·감독, 사업관리 등 조성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그간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연계한 스마트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농업 정책 자문 및 협의,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사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곡성,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 점검 내달 31일까지 250개소 대상

곡성군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 25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2~4월)에는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사면이 붕괴되고 낙석이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

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사고에 대비한 공도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사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3월 31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거주민 연락 체계 정비,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성을 제거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경우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산사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담 3개소, 계류보전 5개소, 산지 사방 4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선 전까지 완료로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고, 강우량이 증가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